태허 대조사 열반 46주기 다례재 봉행

"포교·교육 헌신 근대불교 선각자"
관음종 창종 60주년도 함께 기려
조계산 선암사서 7월 18일 엄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음종은 7월 18일 선암사 만세루에서 개산조 태허 대조사 열반 46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개산조이자 한국 근대불교의 대표적인 선각자인 태허(太虛) 대조사의 열반 46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번 다례재는 관음종 창종 6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7월 18일 조계산 태고총림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태허 스님(1904~1979)은 포교와 교육, 사회참여를 실천한 선각자로, 근대 한국불교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충청도 출신인 스님은 1919년 경성예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경동전문학교에서 근대 학문을 수학했으며, 1928년 낙산 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 중국 상해 법정사에서 구법행을 이어갔다. 귀국 후 묘각사 주지로 활동하며 교육과 포교에 정진했다. 1950년대에는 승려 교육제도 개선과 어린이 백일장 개최 등 대중 포교에 앞장섰으며, 1958년부터는 종로 탑골공원 등지에서 거리설법을 이어가며 '대중 속의 불교'를 실천했다. 또한 초대 선시(禪詩) 강사로 위촉돼 수행과 문학의 접목에도 힘썼다.

종정 홍파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 인연법으로 만난 오늘의 자리가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한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태허 스님의 인연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추도사에서 "스님은 전란 속에서도 결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으며, 거리에서 대중을 향해 법을 설하며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셨다"며 "그 뜻을 잇는 것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오늘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은 "다례재에 많은 대중이 동참해 감사드리며, 이 인연공덕으로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태허 스님은 조선불교에서 종정을 역임한 큰 어른으로, 법화사상과 대중친화적 전법정신을 관음종 후학들이 깊이 새겨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은 "근현대 불교 쇠퇴기에 샛별처럼 등장한 태허 큰스님은 경전 속 진리를 현실로 이끈 개산조로서, 오늘날 관음종의 정신적 뿌리가 되셨다"며 "이번 다례재를 통해 스님의 종지종풍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동·남구불교協, 팥빙수 나눔

7월 22~23일, 자비신행회와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중현 스님, 증심사 주지)와 광주남구불교협의회(회장 동진 스님, 광덕사 주지)는 각각 7월 22일과 23일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을 찾아 직원들에게 정성껏 만든 팥빙수를 전달했다.〈사진〉 양일간 두 단체는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함께 총 1800인분의 팥빙수를 마련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22일 동구청을 방문한 동구불교협의회는 회장 중현 스님을 비롯해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시공 스님(만경사 주지), 법공 스님(문빈정사 주지), 지장 스님(동원사 주지) 등 회원사찰 스님 및 자원봉사자들과 직원 800여 명에게 팥빙수를 제공했다.

23일에는 남구청에서 팥빙수 나눔이 이어졌다. 남구불교협의회는 회장 동진 스님과 도계 스님(소원정사), 법담 스님(금당사), 상운 스님(흥룡사), 현오 스님(봉덕사) 등 회원 사찰 스님 및 자원봉사자들과 직원 1000여 명에게 팥빙수를 제공했다.

중현 스님은 "폭염과 장마로 지친 공무원들을 잠시나마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더운 여름 더욱 힘내어 지역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진 스님은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지만, 앞으로도 이웃과 공직자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각원사, 지역 어르신에 보양식 나눔

7월 18일, 아우내은빛복지관서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스님)가 설립한 아우내은빛복지관(관장 이수경)이 초복을 앞두고 7월 18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주민 900여 명에게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사진〉

'더위는 날리고 행복은 한가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천안흑성회(회장 권광희)와 함께 마련됐다. 이날 흑성회 소속 성기만 각원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떡, 수박 등 여름 보양식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각원사 도솔봉사단도 조리와 배식에 직접 참여하며 행사에 온기를 더했다.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스님은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해 건강하고 평안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원사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 실천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흑성회 회원들과 도솔봉사단원들은 배식은 물론 음식을 직접 손질하며 어르신들의 식사도 도왔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마음과학원 '현대사회 마음공부와 치유'

7월 17~19일, 경주 황룡원서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경주시 황룡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주제로 조계종 승려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연수에는 24명의 스님이 참가해 전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는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라는 주제로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의 역할과 포교 방식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법회 운영과 생활수행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지도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세대별 신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불교가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신도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수과정은 총 5개 강의로 구성됐으며 △제1강 '여는 문&윤회담'(혜찬 스님) △제2강 '대승기신론과 한마음'(청동 스님) △제3강 '커뮤니케이션과 포교'(이화행 교수) △제4강 '화엄세계 I·II'(혜근·혜자·청동·혜벽·혜찬 스님) △제5강 '생활 속의 마음공부: 치유와 성장'(황수경 교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AI를 활용한 법회 운영 방안이 제시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중일 기자

송광사, 제42주기 취봉 창섭 스님 다례재

7월 22일, 경내 지장전서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7월 22일 경내 지장전에서 제42주기 취봉 창섭 스님(翠峰 昌燮, 1898~1983)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고, 송광사 대가람의 기반을 닦은 선지식의 원력을 기렸다.〈사진〉

이날 다례재는 방장 현묵 스님과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과 재가불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동참해 스님의 덕화와 가풍을 되새겼다.

취봉 창섭 스님은 1939년 만 42세에 일본 교토 임제대학을 졸업, 교학 연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귀국 후 송광사 강원 강사로서 후학을 지도하고 교학과 함께 참선 수행에도 전념했다.

스님은 1949년, 1963년, 1970년 세 차례에 걸쳐 송광사 주지를 맡았으며, 특히 한국전쟁으로 송광사가 전소된 후 사찰 복원불사에 헌신하며 현재의 대가람 기틀을 세우는 데 평생을 바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진 스님, 청주불교방송 사장 취임

7월 18일, 취임 법회 봉행



BBS청주불교방송 제10대 사장에 현진 스님(청주 마야사 주지)이 공식 취임했다.〈사진〉

BBS청주불교방송은 7월 18일 청주 S컨벤션 본관 4층에서 운영위원장 정덕 스님(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충북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자재암 주지)을 비롯해 지역 스님들과 서진영 BBS불교방송 사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지역 단체장, 불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현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정보화 시대에 불교의 입체적 포교를 위해 설립된 청주불교방송이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안국사, 양산직업재활센터 자비나눔

7월 10일, 후원금 100만원 전달



창원 안국사(주지 영산 스님)가 복날을 앞두고 양산시직업재활센터(원장 홍성표)에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후원금은 7월 10일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들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과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홍성표 원장은 "영산 스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국사의 자비로운 나눔 덕분에 근로장애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영산 스님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 시상식

9월 17일, 하림각서 개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총재 목탁 스님)가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HW컨벤션센터 하림각에서 '2025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은 전세계 불자 중 지구촌 빈곤 타파, 중생 구제, 의료 복지활동 등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국제적 불교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의 인증이 부여되며, 향후 세계 불교계 지도자로서의 길을 함께하게 된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는 "이상은 매우 성스러운 성자 중에서도 '첫 번째로 승려로서의 의미와 자격을 갖춘 인물'에게 수여된다"며 "특히 봉사와 인류애 실천, 불교 이념 구현 등에 공로가 있는 인물을 발굴해 그 공덕을 기리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자는 단순한 공로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옮긴 이들로, 세계 불교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는 그동안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 수상자 시상을 비롯해 세계불교국제포럼, 캄보디아 왕실 방문과 고승 접견, 세계평화대법회, 장학금 수여, 자선공연 등 다양한 국제 불교활동을 펼쳤다. 또 의료구호활동을 비롯해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포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약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세계불교법왕청이 추구하는 평화와 자비의 이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상식은 사전에 초청된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불자 추천 및 접수는 전화(010-3618-6061) 또는 이메일(moktak1@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행사 후에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포교 및 평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노덕현 기자

완주 송광사, 도예 템플스테이 개최

7월 19~20일, 송광사·봉강요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는 7월 19일과 20일 송광사와 도자복합문화공간 봉강요에서 '명장 진정욱 작가와 함께하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흙과 어우러지는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송광사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도자 명장 진정욱 작가의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

19일 14명의 참가자들은 송광사에서 사찰 예절을 배우고 가람 배치와 성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저녁예불과 사찰음식 공양, 걷기 명상 등을 체험했다.

이어 20일 완주 소양면에 위치한 봉강요에서 진정욱 작가 도자 작품을 감상한 후 직접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체험을 했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오는 8월 23~24일, 9월 27~29일에도 도예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성시노인福, 초복 맞아 특식 나눔

7월 18일, 950명 어르신 대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직영 안성시노인복지관(관장 가섭 스님)은 7월 18일 초복을 맞아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특식 나눔행사'를 마련했다.〈사진〉

복지관 본관(안성시)과 분관(공도읍)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간 여건상 인원을 제한했음에도 총 9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복지관은 이날 정성껏 준비한 영양식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복지관은 특식인 해신탕을 비롯해 떡, 수박, 식혜, 팝콘 등 간식류도 제공해 어르신들의 기력을 북돋았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들도 나눔 활동에 동참해 '함께하는 돌봄'의 의미를 더했다.

관장 가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라며 "복지의 현장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르신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관이 불교복지의 모범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올해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직영 운영을 맡은 후 현재 약 8800명의 어르신이 등록돼 있다.

안성=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